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김 기 현*

목 차

- I. 서론
- II. 미래전의 양상과 국방환경의 변화
- III. 군 구조의 개혁 방향
- IV.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 V. 맺음말

I. 서론

아널드 조지프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말하였다. 지구는 유한한데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생산해 낼 수 있는 부존자원은 가속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다. 환경파괴 현상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인류는 과거 이러한 유한성 및 제한성을 해결하는 방책의 하나로 전쟁이란 방법을 사용해 왔으며 세계질서의 재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하게 움직여가고 있다.

새로이 부상하는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기득 세력 간에 지구의 유

* 대전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박사과정

한·제한성을 놓고 전쟁에 의한 도전과 응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지속으로 전쟁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속에서 전쟁이라는 주제를 외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전쟁은 이미 어느 순간부터 인류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을 것이다.

전쟁이라는 주제를 살펴봄에 있어 미래전 양상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 나라의 안보태세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올바른 판단으로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급변함은 물론이고, 날로 진화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강도 높은 군사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 군사강국들은 군사기술의 고도화를 활용하여 무기체계들을 첨단화하고 있으며, 첨단무기들에 의한 전투능력의 강화로 병력 및 부대수를 감축하고 통합하는 한편, 정보화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고 있다.¹⁾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안보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 남북한의 긴장과 북한의 위협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도발행위를 계속 할 것이며, 북한의 고립은 북한 정권의 의도와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군은 재래식 장비로 편성된 지상군 위주이지만 현대화된 미사일과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5천~6천개의 강화된 군사시설이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²⁾

1) 이필중(2005) "국방개혁과 중·장기 재원소요" 『KIDA 세미나시리즈』 제05-23호, pp135~146.

2) James D. Thurman(2016), "사이버 및 테러리즘과 같은 미래 비대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의 역할과 국제협력 발전방안", 『미래 비대칭 위협대비 지상군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이것은 심각한 위협이기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북한의 불안정성과 군사적 도발은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으며 가장 위협적인 군사적 요소이다. 역제가 실패하거나 북한의 적대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우리 군은 당장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한다.

변화하는 북한 정권의 안보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군도 2005년에 '06~'20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우리 군은 군 구조를 개편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되었다. 하지만 국방개혁을 위한 충분한 국방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유지비가 경상비의 50~52%를 상회하는 우리 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가 전제되지 못하면 국방개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³⁾

고로 군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의 첨단인 조직진단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하지만 군의 조직진단체계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진단기법 발전이 미비할 뿐 아니라 진단조직 또한 미흡하여 광범위한 조직진단과 지속적인 혁신 추진 및 변화관리 등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인력을 보강하고 진단기법을 발전시키는 등 조직진단체계를 우선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발전적 진보를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미래전의 양상과 한반도의 안보환경 인식(認識)의 추세를 면밀히 살펴보고 요구되는 군 조직개편의 모습을 국방개혁 '14~'30 기본계획에 포함된 군 구조의 비전을 통해 살펴본 후,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직진단 및 인력관리 실태를 진단하여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논하고자 한다.

의 역할과 국제협력』, 서울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pp37~46.

3) 백재옥(2016), “합리적인 장기 국방예산정책 방향 검토”, 『주간국방논단』 제1145호, pp2~9.

II. 미래전의 양상과 국방환경의 변화

1. 미래전의 양상

미래전의 양상을 전망해 보는 과정은 결국 어떠한 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탐색하는 과업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 전쟁을 예측하는 것은 안보분야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일 것이다. 너무도 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인데 적의 상대적 의지에 의해서 방향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미래의 전쟁양상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사항 극복을 위해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으며, 클라우제비츠⁴⁾에 의하면 전쟁은 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행위이며, 군사적 폭력 수단의 사용은 적대적 감정과 의도를 기반으로 하여 적의 능력과 의지 및 인식이라는 저항능력을 파괴하려한다.⁵⁾ 즉, 전쟁은 능력수단과 의지와 판단이라는 인식능력들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미래전은 피아간의 이들 저항능력 요소들에 바라보며 강점과 약점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근래에 치러진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면 흐릿한 안개속에서 앞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4개 전쟁(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이라크전)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전쟁과 근본적으로 그 양상을 달리한 것이었다. 미국의 정보 및

4) 독일의 군인·군사평론가. 프로이센 육군의 건설 공로자. 예나전쟁과 12년 나폴레옹 전쟁에 참가하였고, 1831년 사관학교장·참모장을 역임. 그의 저서 《전쟁론(1832~37)》은 전술연구의 고전으로 높이 평가된다.

5) 클라우제비츠(1998), 『전쟁론』, 류제승 역, 서울: 책세상, pp26~44.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지식기반의 첨단 전력이 산업시대의 낙후된 전력보다 얼마나 우월한지를 지구촌 전체에 확실히 각인시켜 주었다. <표2-1> 6)은 전쟁양상의 변화추이 및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표2-1〉 최근 4개 전쟁의 주요특성

구분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이라크전	
피아전력	상대측 병력33만6천, 탱크3,475, 장갑차3,080	병력 4만8천 전차/장갑차	병력 12만5천(실질적 전투 병력 2만 5천)	병력 37만5천 탱크2,200, 장갑차3,700	
	미국측 병력47만, 탱크3,090, 장갑차4,510	지상군 미투입, 항공기 1,259 (전투기680등)	병력14,700, 항공기570(전투기195대 등), 북부 동맹군 약15,000	병력16만8천, 탱크/장갑차 1,800, 공격헬기 380여대	
전쟁양상	39일 공중작전 후 100시간 지상작전, '레프트 후크'기동작전(기동속도40km/h)	78일간 공중·미사일전, 코소보 해방군의 지상작전	원거리 공중강습, 특수전/신약전 (공중 전력 이용 정밀타격)	지상작전과 공중작전 동시 실시, 중심직행의 신속기동(기동속도 80km/h)	
군사교리	공지전투	전략적 마비/효과중심전, 변형된 공지전투	특수작전, 거점공격(point-to-point), 공지전투	신속결정작전, 효과중심작전	
무기체계/기술(지상군)	ISR	위성, JSTARS, 무인기 파이어나이/RPV, 경찰헬기	위성, JSTARS, 무인기 프레테터, ATARS 등	위성, 무인기 글로벌 호크/프레테터/NP-3, 인간정보 등	위성, JSTARS, 무인기 10종이상
	C4	UHF위성통신, VRC-12/SINGARS, sensor-to-shooter사이클 수일수시간	원거리 데이터통신, 화상회의, e-mail	원격지휘, 전투원-항공기 직접정보교환, sensor-to-shooter사이클 최소20분	GCOS Warfighting web, FBCB2, sensor-to-shooter 사이클 수시간-수분
	PGM	총폭탄 투하량의 7-8% 헬파이어, 토우, ATACMS	총폭탄 투하량의 34-35%	총폭탄 투하량의 50%, 동굴파괴용 고성능정밀유도폭탄	총폭탄 투하량의 70% 헬파이어, 토우, ATACMS
	기동 플랫폼	M-1탱크, M-2/M-3장갑차, AH-1/AH-64/UH-60	AH-64	UH-60, CH-47, MH-53, AH-60	M-1탱크, M-2/M-3장갑차, AH-1/AH-64/AH-64D
	정보 전자전	기상위성, 전자전기 EA-6B, GPS	EA-6B, 재머AN/ALE-50, 사이버전	특수전 요원 심리전 (전단살포 등)	CIA/특수부대원, EA-6B
	조직편성	미국/사우디 병행적 지휘구조	NATO와 미군의 이중적 지휘구조	지상군-특수전요원간 병렬구조, 구성군사가 대대급 통제	지상구성군 지휘하에 작전, 특수전부대 독자적 작전
교육훈련	실전적 훈련, 사막전투 사전 연습			새로운 전쟁방식, 사막속달훈련	
군수지원	헬기수송, 전방추진지원	C-17 등 이용 전역수송	공중수송, 정규부대에 의한 특수부대 지원	puell형 군수지원, 군수품의 디지털화	

6) 권태영·노훈(2008),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서울: 법문사, pp117~118.

〈표2-1〉에서 보여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⁷⁾해 보면 첫째, 전력의 통합적 운용과 합동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다. 미군은 걸프전 이후 네트워크 중심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ISR능력, 정보처리 및 융합 능력, 정보 분배 및 표적식별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네트워크에 의해 지상, 해상, 공중, 우주의 전투자산을 상호 시스템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제반 가용전력의 통합·합동적운용성을 대폭 제고할 수 있었다.

둘째, 첨단 기술전력에 의한 새로운 전쟁방식의 압도적 우월성이 확인되었다. 이제 산업 시대 전력에 의한 전쟁방식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소멸이 불가피하다. 4개 전장에서 미군은 속도, 기습, 정밀성, 기동, 기민성 등에 주안을 둔 신 전법에 의해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였다. 미군은 첨단 항공전력과 정밀타격전력을 이용하여 먼저 지휘통제체계를 마비시키고 제공권을 장악한 후, 적의 지상전력을 무력화시켰다. 이라크전에서는 공중공격과 지상군의 동시작전으로 심리적, 정치적 충격을 최대화하여 이라크군이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했던 도시전의 기회마저 박탈하였다.

셋째, 공중작전의 유효성이 획기적으로 증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작전이 결정적 승리에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걸프전시 공중타격은 전체 전과의 30%나 차지했다. 그러나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는 지상작전 개시 이전까지 참호나 장애물에 의존하여 여전히 상당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하였다. 코소보전에서는 세르비아군이 장기간의 공중·미사일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기동과 군사력의 분산배치 및 은닉으로 전투력을 종전까지 계속 유지하였다. 이라크전에서는 미국이 이라크군 스스로를 노출시켜 정밀타격의 표적이 되도록 강요하였다. 하지만 전후 안정화작전은 지상군이 거의 유일한 대안임을 보여 주었다.

넷째, 재래식 방법의 비대칭전은 제한적인 효과만을 발휘할 수 있었다. 걸프전시 이라크군은 유정방화로 미군의 정찰·감시를 어렵게 하고

7) 위의 글. pp99~129.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환경오염분제와 같은 새로운 위협을 제기하였다. 코소보전시 세르비아군은 지상군을 민간시설에 분산, 은닉 배치하고, 야간에는 소규모 단위 부대별로 기동, 기습적으로 운영하였다. NATO군의 감시, 타격을 회피하기 위해 엄폐물, 통나무로 만든 가짜 포대, 종이를 이용한 가짜 대공미사일, 위장 차량, 연막 등을 활용하였다⁸⁾

다섯째, 첨단전력 및 새로운 전법 못지않게 인간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미군장병은 높은 전투의지와 사기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첨단장비 및 전술에 대한 숙련도, 융통성 있는 기획능력, 상황변화에 대한 임기응변 대처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숙련된 장병들은 네트워크 및 정보처리와 관련된 문제, 새로운 장비의 성능 및 운영과 연관된 문제 등이 발생 시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여 전체적인 작전 효과를 크게 재고시켰다.

여섯째, 비대칭적 전략(정보작전, 특수전, 대리전 등)의 보조적 성과가 적지 않았다. 미군은 후세인 정권과 탈레반 정권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고 지도부를 분열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심리전, 공보작전 등을 전개하였다. 특히 적의 전투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자전 활동, 전자편지를 이용한 지도부 분열작전, 미군을 해방군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공보작전 등을 광범위하게 펼쳤다. 특수전은 표적탐지 및 식별을 위한 정보활동뿐만 아니라 대민작전, 항공 전력의 표적유도 작전, 적지 중심작전 등 그 역할 및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대리전은 코소보 해방군, 아프간 북부 동맹군, 이라크 쿠르드 민병대의 역할에서 보듯이 해당지역의 미 지상군 투입을 최소화하고 안정화 작전에도 매우 유익하였다.

일곱째, 다국적 연합작전이 일반화됨에 따라 상호운용성이 매우 중요

8) 위의 글. p120. 세르비아는 종전시까지 이동용 대공미사일인 SA-6의 90%를 유지하였고 pop-up레이다와 광학기술 electro-optic을 이용하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으며 상당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유지하였다. 이는 수동체계나 이동체계를 파괴하거나 사용을 방지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보여준다.

하게 되었다. 미군의 첨단 무기체계와 이를 활용한 새로운 전쟁수행방법은 동맹국들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였다. 걸프전시 영국기갑부대는 비록 첨단 탱크 등을 장비하고 있었지만 미군과 같은 빠른 작전템포와 작전지속능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동맹국들이 주기적인 연합훈련을 통하여 상호운용성 문제를 평소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여덟째, 부수적 동반피해(collateral damage)의 최소화가 심리전, 공보전 등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미군은 부수적 동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민간표적에 대한 타격을 자제하였고, 타격해야 될 경우는 타격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 부수적인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고, 이는 상대에게 유리한 심리전 공간을 제공했다.

앞에서 다면적으로 분석한 바와 같이 탈냉전 이후 미국주도의 4개 전쟁은 과거 산업시대와는 궤도를 달리하는 새로운 전쟁양상을 보였다. 전쟁의 수단과 방법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었다. 전장공간이 우주와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었고, 수평좌표보다 수직좌표의 통제 및 지배가 전쟁 승패에 주요 관건으로 급부상되었다. 전통적인 지·해·공의 전장 공간 구획에 중첩성이 나타났다. 전통적인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작전의 구분에도 중첩성이 표출되었다. 적의 중심깊이 위치한 전략적 중심들을 인공위성을 통해 정밀하게 식별, 표정하고 장사정 정밀유도무기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지난 4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전장운영이론을 지속적으로 발전, 실전적으로 활용해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대는 물론이고, 국제 전략문제연구소(CSIS)와 같은 민간연구소에서도 최근 4개 전쟁을 정밀 분석, 구체적인 교훈을 도출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이론, 군 조직 편성, 전력체계 등을 발전시키고, 그 결과들을 추진 중인 중인 군사변혁(FT)에 반영하고 있다.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 강대국들도 최근 4개 전쟁에서 큰 충격을 받고, 미국의 군사혁신/변혁 움직임을 참고하여, 자국 실정에 적합한 군사개혁프로그램을 부단히 개척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 RMA', 중국은 '중국특색 군사변혁', 러시아는 '강한 러시아를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군사혁신 경쟁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북한은 비대칭적 승부수를 핵·대량살상무기, 사이버전, 그리고 정치심리전에 두고, 이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 국방 안보환경의 변화

2.1. 참여정부

국방 안보환경의 변화는 정부에서 평가한 안보환경진단을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 '03. 2. 25일 출범이래 '05. 4. 28 국방부 업무보고 시 아래와 같이 한반도 안보환경을 진단하였다.

세계정세는 미국주도의 국제질서가 유지될 것이며, 전면전 가능성은 감소되나 국지분쟁이 지속될 것이고, 초국가적 위협이 증대될 것이다. 동북아 정세는 지역 내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지역갈등 요인이 상존하며, 불안정성이 잠재하는 가운데 주변국 군사력 증강이 지속될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한국은 동북아로 중심국가로 부상할 것이며 남북한 국력격차가 심화되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으로 한국군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군사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나 세계적으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될 것이고 지역 내 잠재적 위협의 현실화 가능성이 상존하여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⁹⁾

9) 국방부(2005, 9, 13), 언론브리핑 발표자료.

2005년 북한은 ‘핵보유’성명을 발표하여 그 동안의 ‘불확실 전략’에서 공개 핵보유 전략으로의 전환을 한 해였다. 6자회담의 성과는 불투명해졌고, 북한의 핵문제가 고비를 맞는 시점으로 보였다. 한국에게 있어 북핵문제가 외교문제의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안보문제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여전히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외교문재인 측면이 소멸된 것은 아니나, 어쨌든 안보 차원에서의 대처가 불가피해졌다. ‘북핵불용’원칙은 유명무실해졌으며, ‘북핵 제거’가 새로운 목표로 되어야 함을 의미하였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제조한 시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이미 오랫동안 북한 핵무기와 더불어 살아온 것이지만 어쨌든 북 핵과 공존해야하는 시대가 공식화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의 안보환경 인식은 시각을 달리했다. ‘전면전 가능성은 감소’, ‘북한의 군사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08년까지 약 12,500여 명의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한강 이북의 미군 기지들이 평택기지로 이전될 예정이고, ‘12년 3월 15일 이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발을 맞추어서 내린 안보정세평가로 보였다. 참여정부의 안보정세 판단은 장밋빛이었다.

2.2. 실용정부

참여정부에 이어 실용정부가 ‘08. 2. 25일 출범하였다. 국방부는 ‘09. 6. 26일 한반도 안보환경을 아래와 같이 진단하였다.

세계정세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잠재적 분쟁요인의 표면화 가능성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불변 및 체제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되어 불확실성의 증대와 분쟁발생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군사능력 구비가 요구되고,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수행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는 미래 진장환경에 부합하는 군사력 구조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전구작전수행체제와 세대별·기능별 긴밀한 한·미 군사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증대에 따라 세계평화 유지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군사력 소요 준비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으로 판단하였다.¹⁰⁾

'09년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북한은 '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하였다. 핵실험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시하고, 서해상에서 안보적 긴장을 조성하여 국지전 도발 가능성을 야기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6월 12일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채택하여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이행토록 하였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 안보의 진로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북한은 로켓발사이후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발사 시험, 그리고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 가동을 선포하여 위협을 하였다. 또한 한국의 PSI(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선언하고 정전협정에 더 이상 구속받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핵 실험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하여 이러한 긴장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은 미국의 대북 협상 억제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북한은 새로운 카드를 갖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은 진장환경 변

10) 국방부(2009,6, 26), 언론브리핑 발표자료.

화에 부합되는 군사력 구조로의 국방개혁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2.3. 현 정부

현 정부는 '13년 2월 25일에 출범하였다. 현 정부 출범이후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의 격동성은 2014년이 되면서 매우 두드러졌고, 이는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에 복잡성을 더해 주었다. 현 정부가 '14년 3월 6일에 발표한 한반도 정세는 다음과 같았다.

세계정세는 미국주도의 국제질서 유지 하 신흥강국 부상으로 권력이 분산되고, 국지분쟁 가능성은 지속적인 증대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확산될 것이다. 동북아가 세계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미·중간 견제관계 심화가 예상된다. 국익과 영향력 확대 경쟁 및 군사력 증강 및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 및 영토문제 등의 갈등요인이 상존한다. 한반도는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등 비대칭 전력의 급증하고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은 심화되며 북한체제가 생존을 위해 국지도발 및 전면전 시도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 비대칭 위협·국지도발 위협과 전면전 대비능력의 우선확보가 필요하며, 상비병력 규모 감축 및 질적·기술집약형 구조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국방환경의 변화로 네트워크 발전으로 감시·결집·타격의 반응시간 단축과 초정밀 무기의 발달 등 전쟁수행 패러다임의 변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로 양적 군 구조 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복지요구 점증으로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에 제한이 있다. 고로 북한 위협의 안정적 관리 下 국방개혁의 강력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판단하였다.¹¹⁾

정부는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과 견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미중관계에 적절히 대응해야 했고, 보통국가화 경향을 노골화한 일본을 비롯한 동

11) 국방부(2014,3, 6), 언론브리핑 발표자료.

북아시아 역학관계의 새로운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한껏 고조시켰고, 군 내부적인 다양한 사건·사고에도 대응해야했다.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은 한층 더 위기감을 더하게 되었으며, 북 핵과 W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과 전면전 대비 능력 확보 또한 시급한 과제 이었다. 아울러 병역자원의 감소로 양적인 군 구조 유지에 대한 한계와 전쟁수행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질적·기술 집약형 군 구조로의 개혁이 요구되었다.

Ⅲ. 군 구조의 개혁 방향('14~'30 국방개혁 기본계획)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2005년에 『'06~'20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보완 발간되었다.¹²⁾ 이는 최초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이후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2.5년 단위)에 기존계획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도록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¹³⁾에 근거한 것이다.

『'14~'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우리 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문서로서 수많은 검토와 토의를 거쳐 실현가능한 기본계획으로 발전시켰다.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은 토의를 통해 먼저 기존계획의 보완방향을 정립하고, 하향식 토의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작성한 후 단계별 검증 과정과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였다. 이러한 『'14~'30 국방개혁 기본계획』 분석을 통해 군 구조 개혁 추진이 어떻게 변화되어야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으며, 군 구조 개혁과 부대구조 재편성을 위한 조직진단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해 볼 수 있다.

12) '06~'20 국방개혁 기본계획(2005. 12. 28), '09~'20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 7. 28), '12~'30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 2. 31).

13) 법률 제10217호(2010. 3. 31 개정).

1. 『'14~'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4~'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기존의 국지도발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였던 계획을 조정하여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동시 대비한 것이다. 군사전략 또한 평시 '적극적 억제'에서 '능동적 억제'¹⁴⁾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켰다.¹⁵⁾ 이에 따라 Kill Chain 및 KAMD 등의 주요전력을 증강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반도 안보상황의 위증함을 고려하여 군사대비태세 유지 하 병력 구조 및 부대 개편 시기를 조정하였고, 특히 지상작전사령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와 연계하여 창설 시기를 조정하였다. 목표 연도 상비병력 감축 계획은 보다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켰다.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략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각 군 첨단전력 증강계획을 반영한 점 등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¹⁶⁾

군 구조 개혁 추진 목표는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정보화·첨단화된 네트워크 중심의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군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합동·연합작전 지휘 및 수행역량 강화, 상비병력 감축과 연계하여 정예화 된 병력 구조로 개편, 네트워크 기반 하에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첨단전력 증강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14) '능동적 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를 고려하여 재래식 국지도발에 국한하지 않고, 북한의 핵·WMD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적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개념이다.

15) 2013년에 새로 개정된 『'14~'28 합동군사전략서(JMS)』에서는 군사전략 기본 개념을 기존의 적극적 억제, 공세적 방위에서 능동적 억제, 공세적 방위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군 구조 개혁 추진 목표는 군사전략 기본개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능동적 억제는 기존의 적극적 억제 개념을 포함하는 평시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억제 전략.

16) 국방부(2014, 3, 6), 「'14~'30 국방개혁기본계획」, 언론브리핑 발표자료.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표3-1〉 군 구조 개혁추진방향¹⁷⁾

지휘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참 중심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체계 구축
병력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년까지 52.2만명으로 상비병력 감축 •첨단 무기체계 위주의 군 구조 개편과 연계, 간부증원
부대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군: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아래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 •해군: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 •해병대: 전략도서방어, 입체고속상륙작전 등의 임무 수행 가능한 구조 •공군: 효과중심의 공세적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성 발휘 극대화를 위한 구조
전력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 •비대칭 위협 및 국지도발 대비 능력 강화 •현존전력 발휘의 완전성 보장

1.1. 지휘구조 개편

지휘구조 개편은 미래 한반도 작전환경에 대비하여 합동성 강화를 극대화하고, 합참 중심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합참 개편은 합참을 작전지휘 조직과 작전지휘를 결한 군령 보좌 조직으로 구분 편성하여 임무수행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합참내에 작전지휘조직을 중심으로 미래사령부를 편성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연합지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연계하여 개편하게 된다. 또한 합참을 미래의 적 위협 및 작전환경에 부합한 최적의 조직으로 발전시켜 한미 연합 정보 분석 기능과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상비병력 감축을 고려하여 지휘조직을 최

17) 위의 글, pp2~3.

적화·슬림화하여 편성하게 된다. 세부편성은 한미 간의 합의를 통해 구체화시켜 추진한다.

1.2. 병력구조 개편

상비 병력은 2022년까지 현재 63.3만 명에서 52.2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게 된다. 병력 감축은 부대 구조 개편과 전력화시기를 고려하여 연도별 감축 계획을 수립하였다.¹⁸⁾ 육군병력 11.1만 명을 감축하여 현 49.8만 명인 육군 정원을 38.7만 명으로 조정하되, 병력 감축에 따라 첨단전력을 대폭 증강시킨다. 해군·해병대·공군은 현 정원 내에서 부대 개편을 추진하며, 가용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안정적 병역자원 수급을 위해 전환 및 대체복무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병력은 병 위주로 감축을 추진하되, 이에 따른 전투력 발휘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부 비율을 대폭 늘여서 병력 구조를 정예화하게 된다. 간부 증원은 현재 18.7만 명(29.5%)에서 2025년까지 22.2만 명(42.5%)으로 증원한다. 이에 따라 병사는 44.6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감축하고, 장교는 7.1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소폭 감축하나, 부사관은 11.6만명에서 15.2만 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전투력 발휘가 요구되는 대대급 이하 하부구조를 보강하고,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에 따라 전차, 자주포, 차기 다련장과 같이 장기적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선별하여 병에서 부사관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1.3. 부대구조 개편

먼저 육군은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 하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 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대 개편을 추진한다. 부대 수는

18) 위의 글, 병력 감축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만여명을 감축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7만여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병력 감축에 맞춰 2026년까지 군단을 8개에서 6개로, 사단을 42개에서 31개로 기갑·기계화보병여단은 23개에서 16개로 감소된다. 기동군단 예하 기계화 3개 사단을 해체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한 것은 장차 기동군단의 기본전술부대를 독립작전이 가능한 여단형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 및 검증결과에 따른 것이다. 기본전술부대에 대한 토의는 과거 『12·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도 많은 토의를 한 바 있으며, 기동군단 예하 사단은 여단 형으로 재편하고 대신 군단사령부에 기계화 여단 지휘를 위한 별도 조직을 두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반영하였으나, 기동군단 훈련 간 적용한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하였다. 부대 수를 조정하는 대신 첨단전력 증강, 군단별 공군 ASOC(항공지원 작전본부)¹⁹⁾ 편성 등으로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상작전 사령부는 기존 2015년 창설계획을 수정하였다. 현 안보상황의 위중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고려하고, 군 구조 개혁 추진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창설시기를 재판단하기로 하였다.²⁰⁾

육군 부대 구조 개편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시 야전군사령부 수행 임무를 고려하여 이를 해체하고 야전군사령부에서 수행하던 역할의 대부분을 미래 군단이 수행하며, 군단 참모부는 기존의 정보·작전 기능 위주에서 인사·군수·교육·동원·화력·관리 기능을 포함한 전 기능을 보강하게 된다. 군단 소야전군이라 불리는 까닭이다. 작전능력 측면에서도 미래 군단은 첨단 전력 증강에 따른 작전능력이 대폭 확대 된다. 현재의 지역 군단 작전 능력이 폭30km×중심70km였다면, 미래 지역 군단은 군단 차기 UAV,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합동·전술 C4I체계, 차기 다련장,

19) 위의 글. 공군 ASOC은 군단에 근접항공전력 지원뿐만 아니라 적 장사정포 등 핵심표적 타격이 가능한 전술항공전력을 지원하게 된다.

20) 위의 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확정 후 '매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의거하여 2016년에 시기를 재판단하기로 하였다.

차기 포병레이더, 소형 무장헬기 등의 첨단전력이 보강되어 폭 60km(±) ×중심120km(±)로 작전능력이 약 4배가량 확장된다. 또한 적 포병체계를 파괴하기 위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군단별로 공군 ASOC(항공지원작전본부)를 편성하고, 군단의 독립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단별로 항공단, 방공단, 공병여단, 정보통신단, 군수지원여단을 편성하였다. 항공단과 방공단은 현재 사단에 분산하여 운용하는 전력을 군단에서 통합운용하게 됨에 따라 작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군단사령부 및 직할부대 개편완료시기는 기존 2030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기고, 사단은 기존 2030년에서 2026년으로 4년을 앞당겨 개편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기존 2017년에 안보상황을 재평가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2017년에 안보상황을 재평가 한 후 2021년을 목표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환시기를 가시화하였다.

해군은 수상·수중·공중의 입체전력 통합 운용에 적합한 부대 구조로 개편을 추진한다. 잠수함 전력화와 연계하여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여 적 및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 수중 방호능력을 향상시키고, 특수전 전단은 병력 확보와 연계하여 1개 특전전대를 창설하여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3년부터 이지스함 3척을 추가 전력화하는 계획과 연계하여 기동전단을 개편할 예정이다.

해병대는 전략도서 방어 및 입체고속상륙작전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형 부대 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대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 해군 3함대사 예하에 편성되어 있던 제주방어사령부 해체와 연계하여 제주방어사령부 예하에 편성된 해병부대를 모체로 제주도 통합 방위작전을 수행할 9해병여단(제주부대)을 창설한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 상륙기동헬기 및 상륙공격헬기로 편성된 항공단을 창설하여 작전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부대들의 상륙작전과 전략도서 증원 등의 다양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게 한다. 또한 해병사단은 개편되는 육군 보병사단 편성을 고려하여 정보, 방공, 작전지속지원 기능을 보강하여 해병사단의 전투수행능력을 강화시킨다.

공군은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대비한 효과중심의 공세적 항공우주작전 수행과 합동성 및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대구조개편을 추진한다. 공군은 현 36전술항공통제전대를 모체로 전술항공통제단을 창설하고, ASOC을 각 군 작전사 및 군단까지 확대 편성한다. 또한 새롭게 전력화하는 중·고고도 UAV와 영상·전자정보 장비 등의 항공정찰자산을 운용하여 항공정찰 및 정보지원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37전술정보전대를 모체로 항공정보단을 창설하고, 한반도 상공의 적 위성활동감시 및 우리 군 위성임무를 수행할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한다. 국방정보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화생방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국방부직할 및 합동부대들은 미래 국방환경 변화 및 군 구조 개혁과 연계하여 조직을 최적화하여 개편한다.

1.4. 전력구조 개편

전력구조는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유효적절하게 대응 가능한 능력 확보를 목표로 개편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병력 감축 및 부대개편과 연계하 필수전력들이 적기에 전력화 될 수 있도록 전력증강 우선순위와 소요량, 시기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하였다. 전력증강 우선순위는 부대개편에 소요되는 200여 개의 단위 전력 중 필수전력 46개를 우선 전력화하여 적기에 정상적으로 부대개편이 추진되도록 하였다. 전력화 시기는 기존 2030까지 추진하기로 한 전력증강 계획을 부대 개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0년대 중반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병력이 감축되는 만큼 전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상전력은 K-2전차, K-9자주포, 차기 다련

장, 한국형 기동헬기 등을 전력화하고, 해상전력은 이지스함 추가확보와 차기 구축함, 잠수함, 상륙기동헬기 등을 전력화한다. 공중전력은 현재 추진중인 F-X, KF-X 사업과 공중급유기 도입, 정밀유도무기 등의 추가확보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감시하고 제대별 전장을 가시화하기 위해 다목적 실용위성, 중·고고도 UAV 및 제대별 UAV 등의 전력화와 실시간 전장상황 공유 및 지휘결심 지원을 위한 합동 및 연합 C4I체계와 각군 전술C4I체계 성능개량, 군 위성통신체계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등을 전력화한다. 특히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Kill Chain과 KAMD 전력 등 탐지·식별-결심-타격 능력은 2020년대 초반까지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

IV. 군 조직진단 체계 발전방향

1. 군 조직진단 체계 발전의 필요성

국방개혁의 추진은 거스를 수 없는 대변혁의 물결이며, 우리만이 현실에 안주한다면 안보적 위상 및 군사력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출산율 저하로 미래에는 가용 병력자원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상비 병력을 감축하여야만 하고, 북한의 현존 위협 지속 및 미래 잠재적 위협 등 불확실한 안보정세 변화에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은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과업이다. 그러므로 군 조직을 슬림화하면서 임무수행능력은 높아진 스마트(smart)한 부대구조로 재편성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국방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국가차원에서는 복지, 교육, 경제부문에 대한 우선투자로 인해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및 GNP 대비 국방비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점유율을 높여 갈 수 없는 추세이다.

그동안 우리 군은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국방예산 중 인력유지비가 경상비의 50~52%²¹⁾를 상회하는 우리 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가 전제되지 못하면 국방개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군의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의 장벽을 극복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 및 인력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그리고 체계적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과업에 조직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보조적·부수적 과업을 과감히 조정하고, 과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체계 구축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2006년에 최초로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조직진단기능을 신설할 만큼,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 왔다. 하지만 군 조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의 실태를 살펴보면, 진단체계는 갖추었다고 하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진단기법 발전이 미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군은 1970년대 후반부터 각 군에 조직진단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각 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왔으며, 3~5년 단위로 기능별 진단을 통해 보완, 발전시키고 있다. 월남전이후 조직진단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고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온 미국군의 사례를 통하여 군 병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군의 실태를 비판하고 군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21) 국방부(2015. 12. 3), 「2016년 국방예산편성」, 언론보도자료.

2. 미국군의 조직진단 체계

2.1. 조직진단 관련기관²²⁾

미군은 1970년대부터 공군을 중심으로 조직진단을 시작하였으며, 육군과 해군도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한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각 군별 조직진단 관련기관은 <표4-1> 과 같다.

<표4-1> 미군군의 조직진단 관련기관

구분	육 군		해 군	공 군
조직	인력분석단 (USAMAA)	전력관리지원단 (USAFMSA)	인력분석센터 (NAVMAC)	공군인력단 (AFMA)
평성 인원	30명	250명	220명	402명
주요 기능	평시인력소요산정 (TDA, MTOE부대)	전시인력소요산정 (TOE부대)	최적인력소요 및 전 시인력소요산정	인력소요산정 업무수행절차개선 및 조직재편성
방법	MS-3 12단계 분석법	인력소요기준법 (MARC)	총체전력인력소요 (NTFMR)	관리공학프로그램 (CMS Proces)

- ※ USAMAA : U,S Army Manpower Analysis Agency
 TDA : Tables of Distribution and Allowances
 MTOE : Modification Tables of Organization and Equipment
 TOE : Tables of Organization and Equipment
 MS-3 : Manpower Staffing Standards System
 MARC : Manpower Equipment Criteria
 UFAFMSA : U,S Army Force Management Support Agency
 NAVMAC : Navy Manpower Analysis Center
 NTFMR : Navy Total Force Manpower Equipment
 AFMA : Air Force Manpower Agency
 CMS Proces : Capability-based Manpower Standard Process

22) U.S.Army(1999), "Army Regulation", HQDA. pp570~574.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육군인력분석단(USAMAA)은 육군성 장관 예하 조직으로서 표준인력 배분 시스템인 MS-3분석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회귀분석기법을²³⁾ 사용하고 있다. 육군 조직의 약 50~60%에 대해 기능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표준개발소요기간은 기능별로 2~3년이 소요된다.

인력소요 산정 방법으로는 전투기능은 교리를 준용하며, 전투지원/전투근무지원 기능은 업무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인력소요의 주 연구 내용은 임무 외적 직책, 임무기여도가 낮은 직책, 기술 발달로 인한 진부해진 직책,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 직책, 조직 구조상 불필요하게 만들어진 직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적 조직과 인력소요, 각 직책별 적절한 업무량 배분, 인원의 추가·보강·삭감의 우선순위, 절차 및 체계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등을 제시한다.

전력관리지원단(UFAFMSA)은 육군 작전 참모부 예하 인력소요산정기관으로서 인력소요기준(MARC)을 활용하여 소요를 결정한다. 전투지원과 전투근무지원 기능의 전시 인력소요를 결정하며, 판단기준 및 유형으로는 전술·편성 교리에 의거 인력소요를 판단(작업량과 불일치)할 수 있는 고정 직위, 작업량에 따라 인력소요를 판단 할 수 있는 고정 직위, 작업량에 따라 인력소요를 판단 할 수 있는 변동직위, 임무 및 교리에 의거 지휘관 보좌 직위 수 및 인력소요를 판단할 수 있는 참모 직위 등으로 구분된다.

MARC수행절차는 MARC분석가, 관련 교육기관, 기능사령부, 편제서 작업자, 조직혁신 담당자, 전력계획국장, 전력관리지원단 지휘관, MARC프로그램 관리자로 구성된 팀을 구성한 후에 MAF(MOS Availability Factors)를 2년 주기로 개발하며, 허용범위는 1일 8.7~12시간 기준이다. 허용범위의 의미는 1인 통상 가용시간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미국군의 경우 8.7시간을 그리고 전시의 경우 2교대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23) 조직을 기능 부대(서)로 구분하고, 기능별로 인력 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업무량과 업무부하요소 간의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함.

해군인력분석연구단(NAVMAC)은 해군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적인력 판단 자료를 제공하며, 주요 업무로는 함대 전시인력소요 산정 및 문서화, 전·평시 육상 인력소요문서 검토, 인력소요 프로그램의 정책 및 절차 개발 지원, 인력관리에 대한 자문 제공, 해군본부 지시에 의한 인력 분석 및 연구과업 수행, 임무수행 능력 및 조건 문서 작성 지원, 해군 특기 표준 개발 및 분류 등을 수행한다. 공군은 공군 質관리혁신센터(AFCQMI)²⁴⁾와 공군인력혁신단(AFMA)²⁵⁾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공군 인력단(AFMA)으로 발전되었으며, 혁신적인 관리업무를 통한 자원 절약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업무로는 과정 개선 및 재설계, 외주 용역 및 민영화, 업무의 질적 운용, 관리 개념 및 기법에 대한 연구 개발, 인력의 질 향상 교육훈련 등을 수행한다.

2.2. 조직진단 절차²⁶⁾

각 군별 특성을 반영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 <표4-2> 과 같으며, 기능별 적용 기법은 기능의 임무와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표4-2> 미군군의 조직진단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기능 조직조사 • 기능 업무조사 • 임무분석, 업무분류 • 표본부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샵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개선사항확인 - 업무부하 확인 • 표준업무기술서 작성 • 작업환경 및 여유율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부대현지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범주별 시간측정 - 업무개선시간 산출 • 부서업무총시간계산 • 비표본부대 추가 /예외업무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부대별 인원산정 • 회귀분석을 통한 인력표준모델결정 • 인력유형, 숙련도결정 • 인력편성표 완성

24) Air Force Center for Quality and Management Innovation.

25) Air Force Manpower Innovation Agency.

26) U.S.Army(1999), "Army Regulation", HQDA. pp570~574.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가. 1단계

조직분석, 각종 지침을(규정, 교범, 지침, 현안문제, 상부 지휘지침 등)확인, 파악하고, 특정 대상 부서를 예비 방문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 수검대상 표본부대에 자료를 요청하고 현지 방문 업무실사 및 워크를 통한 자료 확인 및 검증, 추가 자료 수집,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임무(mission)와 과업(task)을 식별하고, 업무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 사항을 수행하며, 또한 공통 표준 작업 방법과 업무 범주별 시간 결정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나. 2단계

업무절차개선을 통하여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절감 요소를 발굴함과 동시에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하여, 전 대상조직에 대해 효율성을 재검토한 후,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 인적자원 소요를 판단한다. 또한 모든 기능에 대하여 3년 단위로 효율성을 재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개선과제 도출, 관련조직 파급, 효과확대를 도모한다. 그리고 임무 및 기능별 인력 소요를 산출하고 비용효과적인 민간계약인력의 혼합편성을 결정하며, 표준 업무 기술서를 완성하고, 작업 측정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표준작업기술서를 작성하고 부대별, 추가·예외업무를 완성하며, 작업량 계수, 작업량의 정의 등 결과 보고를 한다.

다. 3단계

업무 표준화 및 시간 측정, 적정 인력소요 결정을 위하여 계량적 기법에 따라 추가 정원 소요 입증을 요구한다. 자료 분석 단계는 비표본부대 추가, 예외 업무를 조사하고 표준 업무기술서 배포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한다. 현지 자료 비교분석과 통계분석, 최적 수리모델을 선정하

고, 필수 숙련수준(skill)을 결정한다.

라. 4단계

인력표준 편성 방법을 위하여 산업공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업무별 소요시간을 측정 한 후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적정인력소요를 결정한다. 방법론으로는 작업량에 따라 병력편성이 연동되도록 업무시간과 작업량의 관계를 설정하여 적정 인력소요결정 모델을 개발한다. 이 방법은 군내 단일 표준, 사령부 단위 표준, 2개 이상 사령부 인력표준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작업량 수준별 적정인력소요 산출과 전·평시 계급별 세부 인원편성표를 완성하기 위하여 인력표준 수리모델을 적용하고, 인력표준의 적용 및 유지를 실시한다. 해군의 경우 2단계에서 육군 및 공군과는 달리 해상·항공과 육상을 구분하여 조직진단 절차를 수정, 적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표4-3>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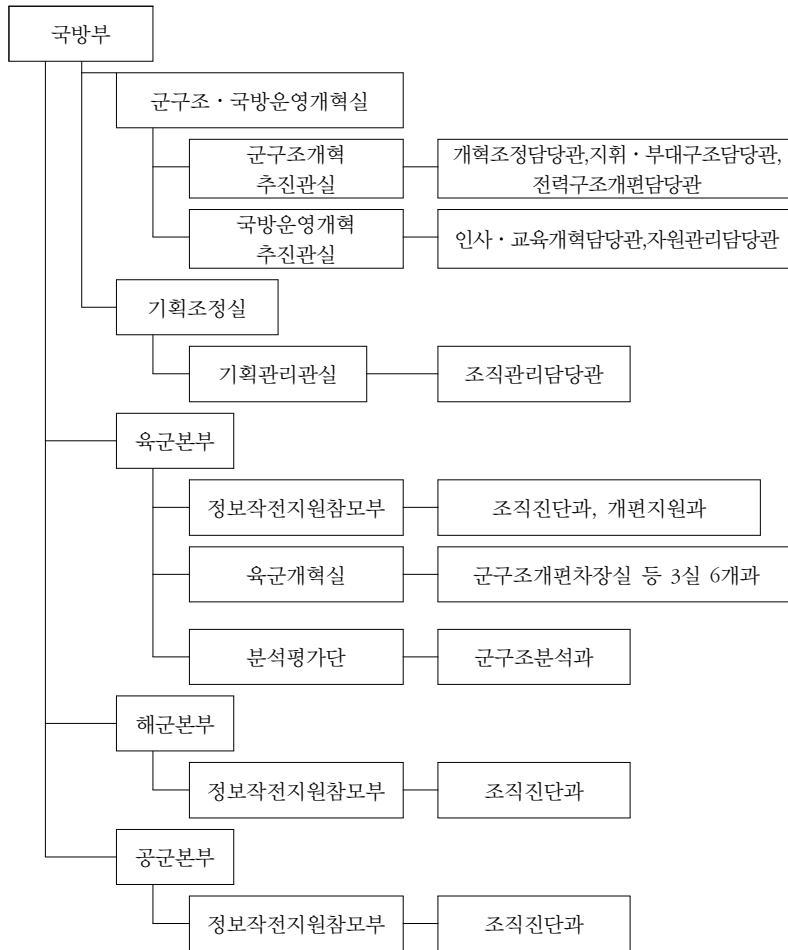
<표4-3> 미 해군의 조직진단 절차

1단계	• 임무파악 : 임무수행 능력 및 조건 파악(작업량 판단의 기초)
2단계	• 소요결정 : 인원수 및 숙련도 결정(제로 베이스하의 순수 소요) -해상/항공 : NAVMAC에서 관리공학기법 이용 전시 기준 소요 결정 -육상 : 인력 요구자(Manpower Claimant, 43개 부대 기능책임자)가 육상인력소요결정 프로그램으로 전평시 소요를 결정
3단계	• 지원 가능성 검토 : 자원 지원부서에서 소요와 예산을 검토
4단계	• 소요 인가 : 인력 요구자가 승인된 소요를 인가 문서에 반영
5단계	• 획득, 훈련, 진급, 장기지원 인원 결정 : 인력 할당 및 인사관리 부서
6단계	• 가용인력 확인 및 할당(해상, 육상, 항공)

3. 한국군의 조직진단 실태

3.1. 조직진단 관련기관²⁷⁾

〈표4-4〉 한국군의 국방개혁 관련 조직 편성



27) 국방부(2016), 인터넷 홈페이지 국방부 조직안내.

우리 군은 국방개혁 목표 달성을 위해 군 인력의 정예화·효율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문제인식하에 국방부에 군구조·국방운영 개혁실을 설치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획관리관실 이하 조직관리담당관실에서 조직정책·국군정원관리·조직진단업무를 통괄하고, 각 군은 정보작전지원참모부 예하에 과로 편성되어 조직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조직편성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능 인력보다는 정책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상부구조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조직진단기능의 수준은 일개 과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위상도 취약한 실정이다. 전문 인력 측면에서 조직진단 전담인력 편성이 미약하고, 조직진단 담당자가 현역 장교로 편성되어 잦은 교체로 인해 전문지식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조직진단체계의 발전적인 진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3.2. 조직진단 방법 및 절차

국방부에서는 국군조직법²⁸⁾에 의거하여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²⁹⁾과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훈령에 조직진단관련 규정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육군은 이러한 법령과 규정을 근거로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서』³⁰⁾를 발간하여 조직진단 및 정원관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훈령에서 제시된 내용은 업무수행절차와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을 뿐,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8) 법률 제10821호, 2011.7.14. 일부개정.

29) 대통령령 24630호, '13. 6. 21, 타법개정.

30) 육군본부, 2006.11.2. 편성업무 실무 지침서.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표4-5〉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훈령(조직진단업무 수행)³¹⁾

제46~47조	• 조직진단의 목적, 진단의 구분(정기진단, 수시진단)
제48조	• 진단의 사전준비(진단요원 준비사항, 피진단부대 준비사항)
제49조	• 진단계획의 수립(목적 및 방침, 중점 및 착안사항, 대상 및 기간 등)
제50조	• 조직진단 권한 및 대상(국방부장관의 권한, 각 군총장의 권한)
제51~52조	• 조직진단 권한 및 대상, 진단요원 편성, 진단결과의 처리

또한 육군 조직진단 및 정원관리의 기준인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서』에 제시된 내용도 조직진단방법에 대해 개략적인 지침과 절차를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표4-6〉 육군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서(조직진단업무 수행)

제1절	• 조직진단 정의 및 목적, 진단 및 분석 절차
제2절	• 조직진단의 범위 및 수준 -진단주체에 의한 분류 -진단수준에 의한 분류 -진단범위에 의한 분류(종합진단, 부문별 진단, 과제별 진단)
제3절	• 진단의 모형 및 절차 -진단 모형 및 변수 -조직진단 절차 -과제별 진단 목적 및 절차 *기능진단, 조직구조, 인력, 과정·절차, 문화·행태

31) 국방부훈령, 제1946호, 2016.8.5시행.

육군의 조직진단과 업무수행은 조직진단절차를 7단계로 선정하여 추진해왔다. 조직진단 대상 부대의 선정은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국직부대로 조정이 되는 부대이거나, 부대개편계획에 의거 개편되는 부대, 육군 정책에 의해 수시 소요가 있는 부대, 조직진단을 하였거나 부대창설 후 2년이 경과된 부대를 위주로 선정하였고, 조직진단절차 7단계의 시행은 아래의 <표4-7> 과 같이 진행되었다.

<표4-7> 육군 조직진단과 조직진단절차 7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사전 진단 (1개월 전)	현지 진단	결과 종합, 개편 지침 하달	개편 (안) 토의	피진단 부대 개편 (안) 접수	최종 (안) 보고/ 확정	2년 경과부대 유효성진 단

1단계 사전진단은 진단 1개월 전에 ① 피 진단부대 정보수집/유사부대 편성 연구② 대상부대 요구자료 접수/검토 ③ 현지진단 기초자료 작성/진단방향 토의 병행을 실시한다.

<표4-8> 조직진단시 현지진단활동 중점

- 편성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 검토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통칙, 조직/정원관리 훈령, 육군 방침 등 예) 2명을 실로 편성, 과원이 5명 미만인 과 등
 - 행정을 위한 본부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운영과' 편성 등
- 계층별 과업과 직무내용에 대한 직무값 검토
 - 간부 보조직위 병사, 전문기술 직위 편성 등
 - 단순 노무직위에 현역, 군무원을 편성하여 인력 낭비 등
- 동일유형 타부대 비교, 유사·중복직위 통합
 - 00부대 : 차량 142대, 운전병 157명 (110%), 정비인력 (간부 25)편성
 - 보병연대 : 차량 138대, 운전병 120명 (87%), 정비인력 (간부 7명) 편성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2단계 현지진단은 ① 1일차는 조직진단 방향 토의 ② 2~4 일차는 진단활동결과 개편 방향 실무토의 ③ 5일차는 조직진단 결과 토의로 진행한다. 현지진단활동의 중점은 <표4-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진행된다.

3단계는 현지진단 결과를 기초로 감축목표 및 개편 지침을 하달한다. 편성 관련 규정 및 방침과 개편안 작성시 주의사항 등 병행 하달한다.

4단계는 피 진단부대가 감축목표 내 개편안 작성하여 육본 정보작전지원참모부로 보고한다. 육본 정보작전지원참모부는 피진단부대에서 작성한 개편안과 조직진단결과 개편안 비교 분석하고, 편성 원칙 준수 여부 및 제한사항 등을 검토한다.

5단계는 피 진단부대 개편안 토의를 육본 관련 부·실 과장, 조직진단팀, 피 진단부대 참모장(참모) 참석하여 실시한다.

6단계는 최종결과 보고와 개편안을 확정한다.

7단계는 조직진단 2년 경과 후 개편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는 유효성 진단을 실시하여 부대개편 후 정상적인 임무수행 여부와 보강소요를 확인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한다.

육군의 조직진단업무수행을 분석해 보면, 조직진단을 통해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단위를 대상으로 과학적, 분석적 방법이 아닌 야전부대 현장에서 평시업무 위주의 인력소요를 편성의 기본원칙과 유사기능부대와 비교하여 병력감축위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과업에 조직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보조적·부수적 과업을 과감히 조정하고, 과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체계 구축이 제한된다.

또한 증·창설 및 해체·감편 시 병력을 증가/감축하거나 조정 시절차상의 문제점 개선이나 업무의 축소 및 폐지 없이 인원만 삭감함으로써 잔류인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업무량의 정도, 부대별 고유 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주관에 의한 획일적인 편성을 적용함

으로써 부대의 임무수행능력을 저하 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진단업무 수행체계는 국방개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제한사항이 따른다.

4.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조직진단을 함에 있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방법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낭비 요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애매한 사항도 있고, 자신의 업무가 낭비적인 것으로 파악될 것에 대한 강한 저항도 있다. 그러므로 조직과 인원의 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조직혁신의 추구는 업무와 업무 수행방식의 전환에 초점을 두고 대다수의 구성원이 인정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수반하여 조직과 인력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방부문 혁신마인드의 형성과 확산이 필수 불가결하다. 군의 병력규모를 감소시켜야 됴에도 불구하고 각 급 부대에서 부대계획 소요를 제기 시 행정직위 위주로 병력을 추가편성 해 달라는 증편 요구는 조직 편성의 효율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야전부대는 군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부대 중심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 간부를 대상으로 경영과 혁신의 개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조직진단기구 설치의 개선이다. 조직 및 인력의 효율화 작업을 위한 진단기능은 각 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방부는 조정 및 통제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방부를 비롯하여 각 군 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진단관련 기구의 편성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능 인력보다는 정책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상부구조위주로 편성되어 있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고, 조직진단기능의 수준은 일개 과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위상도 취약한 실정이다. 전문 인력 측면에서 조직진단 전담인력 편성이 미약하고, 조직진단 담당자가 현역 장교로 편성되어 잦은 교체로 인해 전문지식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조직진단체계의 발전적인 진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조직진단의 첨단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강화하고 군 진단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이 현역에 의한 순환보직 개념의 운영으로는 절차와 체계가 갖추어지더라도 효율적인 기능수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단업무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인력을 확보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동일기능(부서)별로 진단을 하되, 인력 소요는 업무절차의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업무의 축소 및 폐지 등을 통해 병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또한 비용 절감과 업무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획일적인 작전훈련기준적용, 중복 감사 등의 재검토와 주 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는 과감히 축소 폐지하고, 또한 병력절감 대체장비를 중점 발굴하며, 민간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한 기능이나 업무를 식별하여 이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 및 인력 효율화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용시간의 경우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고 있는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1인당 월 가용시간을 재설정해야 하며, 2~3년 주기의 진단 정례화, 계급별 정원의 엄격한 유지 등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원 외 관리병력인 비정규직 인원, 파트타임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도입 등도 필요하다. 아울러 인력소요의 주 연구 내용은 임무 외적 직책, 임무기여도가 낮은 직책, 기술 발달로 인한 진부해진 직책,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 직책, 조직 구조상 불필요하게 만들어진 직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적 조직과 인력소요, 각 직책별 적절한 업무량 배

분, 인원의 추가·보강·삭감의 우선순위, 절차 및 체계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제도상의 모순이나 비현실성을 혁신하여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조직진단 결과는 신설, 부족기능 보강에 우선 활용(추가정원 소요 자체 해소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계량적 작업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적정 인력소요를 산출해야 한다. 조직 및 인력 효율화를 위한 작업은 정성적 측면보다는 정량적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론이 부재하며,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우수사례(Best Practice)는 모든 관련부서(대)에 전파하여 파급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지휘관 개인의 지시 사항보다 부대(조직)의 임무수행에 중점을 두어 동일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서)의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조직 효율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

일곱째, 국방부와 각 군 그리고 연구기간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자료 공유 및 관련체계 정립, 기법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

V. 맺음말

군 조직이 국방개혁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생존하며, 그 과정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반복하여야 하며, 비부가가치적인 업무를 제거하고 이것을 부가가치적인 업무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군도 예외는 아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현대전의 양상은 '기계화' 차원을 뛰어넘어 '정보화', '우주화'의 실용단계로 접어들었으며, '무인화', '비살상화'를 향해 다양한 개척과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반도 주변의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강국들 또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미래의 전쟁양상을 '고도기술조건하에 국지전'으로 가정하고 기술 강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일찍이 '첨단기술에 의한 전쟁역지교리'를 채택하고 상용 베이스의 첨단 핵심기술을 축적하여 '전략무기 선택권'을 확보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미국과 미사일방어체계(MD:Missile Defence)를 공동 개발하고, '정보화 RMA'를 공식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러시아는 미국 보다 한걸음 앞서서 21세기 군사혁신의 원조인 '정찰-타격 복합체(RSC)'의 이론을 창안한 군사 대국으로서, 푸틴의 '강한 러시아 정책'에 따라 신 군사독트린을 채택하고, 핵 및 항공우주전력과 장거리 작전능력을 중점적으로 발전, 구소련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안간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주변 강국의 군사혁신 및 군비경쟁양상은 한국안보에 비상경보를 울리고 있다. 한국이 과거와는 다른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개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군 고위층의 강력한 혁신의지 천명과 마인드 형성, 군 전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의 여건형성 노력이 요구되며, 프로세스 중심의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이 기구는 현재보다 그 위상과 기능이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에 있어서는 다양한 인사의 참여,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현장 지향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조직진단의 방법도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과업에 조직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보조적·부수적 과업을 과감히 조정하고, 과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권태영·노훈(2008),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서울: 법문사
- 국방부(2003), 『한국적 군사혁신의 비전과 방책』
- 국방부(2016), 국방개혁에 관한법률 제10217호(2010. 3. 31 개정)
- 김상호 외(2006), "06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7전망", 『주간국방논단』 제1176호
- 박창권(2009),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북 간 전략게임과 한국의 선택" 『주간국방논단』 제1276호
- 백재욱(2016), "합리적인 장기 국방예산정책 방향 검토", 『주간국방논단』 제1145호, pp2~9
- 부형욱·장혜진(2015), "안보환경과 주요 국방 이슈, 2014년 회고와 2015년 전망" 『주간국방논단』 제1552호, pp2~9
- 이필중(2005), "국방개혁과 중·장기 재원소요" 『KIDA 세미나시리즈』 제05-23호, pp135~146
- 이현지·조관호(2007), "군 인력운영지표의 필요성과 개발 방향" 『주간국방논단』 제1145호, pp2~7
- 존 에드워즈(2006), 『진화하는 전쟁』 류동완 역, 서울: 플래닛 미디어
- 클라우제비츠(1998), 『전쟁론』 류제승 역, 서울: 책세상
- James D. Thurman(2016), "사이버 및 테러리즘과 같은 미래 비대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의 역할과 국제협력 발전방안" 『미래비대칭 위협대비 지상군의 역할과 국제협력』 서울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국외 문헌〉

- U.S.Army(1999), "Army Regulation", HQDA. pp570~574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국방부 언론 보도자료〉

- 국방부(2014.3.6), 「'14~'30 국방개혁 기본계획」, 언론브리핑 자료
- 국방부(2005. 9. 13), 언론브리핑 발표자료
- 국방부(2016), 인터넷 홈페이지 국방부 조직안내
- 국방부(2009. 6. 26), 언론브리핑 발표자료
- 국방부(2014. 3. 6), 언론브리핑 발표자료
- 국방부(2015. 12. 3), 국방예산편성 언론브리핑자료

〈군내 자료〉

- 국방부(2016), 『국방조직관련 법령집』
- 육군본부(2006), 편성업무 실무 지침서

Research on development of organization analysis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defense environment changes

Kim, Gi-Hyun*

Security environment we face in the Korean Peninsula is unexpected. Tension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and its threats are continuously evolving. Kim Jung Un will keep on conducting provocations and DPRK's isolation will result uncertainty to their objective and intention. KPA is centered on ground forces with conventional weapons but they possess modernized missiles and nuclear capabilities. What's more concerning is that North Korea continuously pursue and develop nuclear weapons and missile capabilities.

Pursuing defense reform is inevitable for the ROK to deal adequately against the security threats posed by the North and to prepare for the environment of future warfare. If we are satisfied with the current capabilities then our military capabilities and security status will retrogress. We have to reorganize our units to make a small but FMC, smart military organization.

Organization analysis is an urgent issue for reorganizing units. However, it isn't an easy task to reform an organization. There are vague parts for analysis and strong resistance from the people within the organization. Therefore should not focus on the reduction of people and

* Daejeon University Military Studies doctor's course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진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the organization.

Organization reform should be done with the acknowledgement of most of the personnel and should focus on the task and its method. These should be reflected to the organization analysis.

Key Words : North Korean threat, Defense reform, Military architecture, Reorganization, Organizational